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 6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 영 배

제주 굿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 전상놀이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지 소 영

2010년 2월

제주 굿놀이의 교수 · 학습 방법 개발 연구

– 전상놀이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지 소 영

지 소 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2010년 2월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제주 끗놀이의 이해	4
1. 제주 민속놀이의 개념과 분류	4
2. 제주 끗놀이의 종류	6
3. 전상놀이의 유래 및 연희과정	7
III.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12
1. 전상놀이의 교육과정 구성	12
2. 전상놀이의 극본 구성	38
IV.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과정안	61
V. 결 론	76
※ 참고문헌	79
※ 국문초록	81
※ ABSTRACT	83

- 표 목 차 -

<표 1> 제주의 민속놀이	5
<표 2> 제주의 굿놀이	7
<표 3> 전상놀이의 교육과정	13
<표 4> 전상놀이 1/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62
<표 5> 전상놀이 2/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65
<표 6> 전상놀이 3~4/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67
<표 7> 전상놀이 5/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69
<표 8> 전상놀이 6~7/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72
<표 9> 전상놀이 8~10/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74

- 악보 목 차 -

<악보 1> 6/8박자 가락의 장단	21
<악보 2> 2/4박자 가락의 장단	21
<악보 3> 【장면 1 :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떨을 낳다】	24, 40, 60
<악보 4> 【장면2 : 부자가 되어 가문장아기를 추방하다】	25, 45
<악보 5> 【장면3 :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26, 47
<악보 6> 【장면4 : 가문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27, 50
<악보 7> 【장면4 : 가문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27, 54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제주도의 거센 파도와 세찬 바람은 언제나 제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 속에서도 제주 사람들은 자연에 의지해 살아왔다. 생활이 힘겨울 때마다 신당을 찾아가 빌고 심방을 불러 굿을했던 것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지방과의 교류가 적어 문화적 충격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고 따라서 내륙지방에 비해 옛 문화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이 미약하여 제주민의 부족공동체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었고 신들의 섬이라고 할 만큼 무속의례가 성행하여 많은 굿이 전해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굿 속에는 창세, 운명, 만물창조, 조상, 공동체문화 등 장구한 한민족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고 오래된 인류의 기억들이 남아 더욱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 당굿의 본풀이를 보면 신의 이야기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내력담이고, 이는 곧 마을의 역사이며 삶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굿은 민중의 축적된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신화를 대본으로, 신앙 공동체이자 생산 공동체인 집단이 만들어 낸 민중의 연희물이다. 따라서 제주의 민속놀이는 굿과 연결된 것이 많다.

20세기에 민족학이 성행하면서 굿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제주도에서도 1950년대를 전후하여 국문학자와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국문학적 연구, 민속사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문학적, 민속 사학적 가치를 찾는 연구에 비해 교육적 연구, 특히 굿놀이를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취지하에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지역화 학습과 가·무·악이 통합된 총체적 예술로서의 통합 교육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통합 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을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찰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주도의 살아있는 삶의 자료로 제주의 민속놀이인 제주 굿놀이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즉, 학교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굿놀이의 통합적인 가·무·악의 형태와 극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동시에 제주 무속음악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신장을 이룰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지역 생활문화와 관련되는 문화유산과 민속자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의 민속놀이의 하나인 굿놀이 전상놀이를 중심 주제로 한다.

제주도 굿은 본풀이와 맞이, 그리고 놀이로 구성되는데, 언어위주의 신화인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고, 무용 위주의 맞이와 연극적 연출의 놀이가 추가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전상놀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전승되는 삼공본풀이¹⁾라는 제주 신화를 굿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굿놀이로서, 제주도의 지역적·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일정한 출거리와 극적인 플롯, 반전으로 해피엔딩을 이루며, 해학적인 대사와 몸짓, 비판과 풍자, 즉흥적인 애드리브 등의 연

1) 삼공본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차(祭次)를 말한다. 제주 큰굿을 할 때에 나쁜 전생의 인연을 제거하고 좋은 전생의 인연으로 행운이 오도록 기원하는 제차이다.

극적 특성은 음악과 무용과 연극적인 동작으로 되어 있는 굿놀이의 특성과 더 불어 음악극놀이로 현대화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텍스트 읽기를 통한 이해나 동영상 자료의 시청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여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전상놀이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지양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전상놀이의 교육적 요소를 찾아 분석하고 간략화, 정형화, 축소화하여 음악극 형태의 가·무·악·극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그 연구범위이다.

연구 방법은 먼저 문헌 자료를 통해 제주의 민속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 의 민속놀이 중 굿놀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며 또한 전상놀이에 대해서도 문헌 연구 및 채록 자료를 가장 먼저 선행한다. 또한 제주 무속음악 중에서 주요 선율을 추출하여 음악극 전상놀이에 필요한 곡을 편곡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전상놀이를 가·무·악·극의 통합적인 음악극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제주의 굿놀이 중에서 전상놀이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그 지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후에 이 연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 제주 끗놀이의 이해

1. 제주 민속놀이의 개념과 분류

민간에는 예로부터 경기, 연희, 오락, 곡예 등의 다양한 놀이가 전해오고 있는데, 민속놀이란 각 지방의 특수한 풍속과 생활, 문화, 역사 등이 반영되어 오랫동안 민중들의 공감대에 의해 형성된 놀이들을 말한다.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²⁾, 이것은 민속놀이라는 개념 속에는 유희성, 오락성,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에 내려오는 습속 중에서 민속놀이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많다. 특히 끗놀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인 배경을 토대로 민간 생활 속에 신양성의 놀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제주의 민속놀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육지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기에 육지의 민속놀이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육지의 민속놀이가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대동놀이를 대표로 꼽는다면, 제주의 민속놀이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협동 기원성 놀이가 주를 이룬다. 즉, 제주의 민속놀이는 육지의 민속놀이처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으며, 개인별, 마을 단위로 소집단적 성격을 띠고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제주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대부분 마을별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4·3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점점 자취를 잃어 지금은 전통적인 형태의 민속놀이의 전승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제 강점기에는 함부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집단행사를 금

2) 임동권 외, 『민속놀이론』(서울:민속원, 1997), 11쪽.

지했고, 광복 후에는 어렵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놀이를 전승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특히 4·3사건으로 제주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속놀이의 맥락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6·25 남북전쟁은 전통의 붕괴와 근대화의 유입으로 농경사회를 무너뜨림으로써 놀이를 향유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민속놀이의 단절을 가속화 시켰다. 간혹 마을의 체육대회나 학교의 체육시간 등을 통해 민속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사를 위해 치러지는 게 고작이고 그러한 경우도 요즘 도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제주의 민속놀이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발히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각종 연구 자료와 각 고장의 마을지에 나타난 제주의 민속놀이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의 민속놀이를 분류해 보면, 크게 성인놀이와 전문인놀이, 아동놀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종류는 <표 1>과 같다.³⁾

<표 1>

제주의 민속놀이

구 분	놀 이 종 류
성인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닭붙잡기 놀이, 연날리기, 걸궁, 정소암 화전놀이, 백중놀이, 목장불놓기, 조리희, 소싸움놀이, 소줄다리기놀이, 말타고 경주하기, 사또놀이, 훑싸움놀이, 잔치집놀이, 꽃상여놀이, 뚱돌들기, 닭싸움놀이, 콩윷놀이 등
전문인놀이	화반놀이, 입춘굿놀이, 약마희, 영감놀이, 산신놀이, 불싸움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등

3)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道誌』第7卷 문화유산 (제주:제주도, 2006), 384-385쪽.

아동놀이	곤각시만들기, 관등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지게발 걷기, 죽마타기, 재기차기, 가마타기, 기러기놀이, 말흉내내기, 말타기, 잉어놀이, 꼬리따기, 폭총놀이, 고누, 눈싸움, 돈치기, 두럼놀이, 말싸움 고장놀이, 딱지치기, 땅채먹기, 뻥이치기, 연날리기, 지게발걷기, 청애조심, 편싸움, 재기차기, 풀놀이 등
------	--

2. 제주 놀이의 종류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신과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 신앙이 성행했던 것은 자연적 환경 조건에 의한 도민의 생활고에 요인인 있을 것이다. 즉,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로 제주 사람들의 의식에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놀이를 통한 다양한 놀이가 전개된 것이다. 『탐라지』, 『제주도실기』, 『동국세시기』, 『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만을 보더라도 심방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신에게 기원했다는 입춘굿, 꽃반, 영등굿, 기타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집단적 놀이가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⁴⁾

입춘굿과 영등굿의 놀이에 신앙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은 종교와 종합예술로서의 종교와 노래와 춤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보다도 이는 고대사회 생활의 일면을 그대로 실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제주의 놀이는 제주도 자연 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고대의 생활 모습을 들판 내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놀이에서 ‘놀이’란 ‘즐기다, 놀리다(動作), 놀다’ 등의 뜻으로 유희와 연극의 의미로 해석된다.

4) 위의 책, 397쪽.

연희의 중요한 요소는 그 연희를 행하는 사람의 노래, 춤, 기술, 이야기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극적으로 실감있게 짜여져 보여져야 한다. 그래야만 관중들의 흥미를 돋워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끗에서는 이러한 극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데 특히 끗놀이는 다른 맞이굿이나 본풀이에 비해 극적 요소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끗의 전편 혹은 대부분이 모두 극적인 요소로 전개된다.

전상놀이 역시 주로 연극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연극적으로 실연되는 끗놀이로서, 봉사가 된 거지 부부가 잃어버린 딸이 배푸는 잔치에 참석하여 딸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이 전개된다.

제주의 끗놀이는 종이탈굿놀이와 심방굿놀이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종류는 <표 2>와 같다.⁵⁾

<표 2>

제주의 끗놀이

구 분	놀 이 종 류
종이탈굿놀이	입춘탈굿놀이, 서천꽃놀이, 전상놀이, 영감놀이 등
심방굿놀이	화반놀이, 입춘굿놀이, 약마희, 영감놀이, 산신놀이, 용놀이, 불싸움놀이, 강태공서목시, 허맹이놀림, 아기놀림 등

3. 전상놀이의 유래 및 연희과정

가. 전상놀이의 유래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권 (제주:제주특별자치도, 2008), 212쪽.

전상놀이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는 문헌자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상놀이가 우리 민족의 민속신앙이자 민속놀이인 굿놀이로 전승되어 온 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굿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상을 차지한 신이 ‘삼공’이라는 데에서 전상놀이를 ‘삼공맞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전상’이란 말은 묘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몇 번 실수를 하여 창피를 당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감옥에 몇 번 출입을 해도 도둑질을 하는, 이처럼 안 해도 좋을 일을 벼룩처럼 하는 행위를 ‘전상’이라 하기 때문이다.⁶⁾

전상놀이는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굿놀이로, 예전에는 제주 큰굿에서 활발하게 연행되어 왔으나, 점점 사라져 보기 어렵다. 현재는 전통 민속놀이로 탐라입춘굿놀이에 연행되고 있고, 놀이패에 의해 민속극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상놀이는 큰굿의 한 제차(祭次)로 이루어지는데, 삼공신의 제상을 마당에 차려 초감제를 하고 신청궤로 신을 청하면 거지 차림의 봉사 부부가 막대기를 짚고 나타난다. 거지 잔치에 부모거지가 찾아든 것이다. 이것은 삼공본풀이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연극적으로 실연하는 것이다. 거지 봉사부부를 맞은 수십방이 신화 속의 막내딸의 역할을 하여 자신의 부모임을 확인하고 술대접을 하자 거지부부가 술 한 잔을 마시려다가 막내딸임을 알아보고 술잔을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뜨여 밝은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후에 이들이 전상 차림을 하고 전상을 풀어내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나. 전상놀이의 연희과정⁷⁾

굿놀이라는 것이 실제 굿에 삽입된 놀이이기에 전상놀이 역시 굿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굿놀이를 그대로 재연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6) 현용준, 『靈』(제주:각, 2004), 481쪽.

7) 위의 책, 482-496쪽.

전상놀이 연희과정의 분석은 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전상놀이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초감제

다른 굿처럼 정식으로 시행한다. 천지, 일월의 생김, 산천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가 생기고 하는 과정을 노래와 춤으로 설명하는 배포·도업침,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날과 국 섬김, 군문을 열어 신들을 청하는 신청궤, 신들에게 제물을 잡수도록 권하는 추물공연, 주인에게 배례를 시키고, 폐백을 바치는 역가(役價) 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배포침

초감제 초두에 배포침을 한다. 한 단락의 창이 끝나면 심방이 춤을 춘다.

(나) 신청궤

대령상을 앞에 놓고 신을 청한다. 소미(小巫)는 땃잎으로 술을 적셔 계속 바깥쪽으로 뿌리고, 심방은 신칼과 감상기를 들고 춤을 춘다.

(다) 추물공연

심방은 신에게 차려놓은 제물을 잡수도록 권하는 노래를 부른다.

(라) 본주(本主) 절시킴

주인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마) 역가(役價) 올림

신의 덕으로 벌어먹었다고 폐백을 올린다.

(2) 거지잔치

수십방이 신을 청하면 거지 봉사 부부가 나타난다. 한 심방은 갓을 쓰고 헌 두루마기를 입어 막대를 짚고 한 심방은 헌 여자옷 차림으로 막대를 짚어 더듬더듬 찾아 들어온다. 거지 부부를 맞이한 수십방은 찾아온 이유가 거지잔치를 얻어먹으러 온 것임을 확인하고, 맨 나중에야 방으로 모셔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 거지는 장구를 치면서 살아온 내력을 노래해 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녀 거지가 연분이 맞아 부부가 된다.
- ② 딸 들을 낳고 막내딸을 낳자 일약 거부가 되어 잘 산다.
- ③ 부모는 호강에 겨워 딸들의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답을 한다.
- ④ 위로 두 딸은 부모님 덕이라 하는데, 막내딸은 내 배꼽 밑의 금 덕분이라고 하여 쫓겨난다.
- ⑤ 막내딸을 내쫓은 부모는 눈이 멀어 거지가 되어 돌아다닌다.
- ⑥ 막내딸은 마를 파먹는 마퉁이를 만나 부부가 되고 금덩이를 주워 부자가 된다.
- ⑦ 부모가 거지가 된 것을 알고 막내딸은 백일 간 거지잔치를 연다.
- ⑧ 마지막 날 찾아든 봉사 부모를 만나 후하게 대접하며 술잔을 드린다.
- ⑨ 술잔을 들고 먹으려던 부모는 막내딸임을 알고 놀라는 순간 눈을 뜬다.

이 이야기에서 호강에 겨워 막내딸을 불효하다 여겨 내쫓은 것이 ‘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상 차지 신이 되는 것이다.

(가) 거지 등장

거지 봉사 부부가 막대기를 짚고 더듬더듬 들어온다.

(나) 상(床) 받음

거지 부부가 방으로 청해져 들어가 ‘공식상’이라는 잔칫상을 받는다.

(다) 본풀이

삼공본풀이를 노래해 오다가 막내딸임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번쩍 뜨며, 술잔을 덜렁 떨어뜨려 그 엎어지고 자빠짐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3) 전상풀기

눈을 뜬 거지 부부는 둋자리를 몸에 두르고 이 방 저 방에 가서 드러누우면 수십방이 쫓아가서 매를 때린다. 모든 방을 다 돌아다니며 이 둋자리 두른 거지를 때리면서 쫓아낸 다음, 집안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쓸어 내친다. 이를 것을 ‘전상풀림’이라 한다.

(가) 전상차림

뚱자리를 몸에 두르고 거지 쌀자루를 드는데, 이것이 전상차림이다.

(나) 전상풀기

뚱자리를 두른 거지를 때려서 내쫓고 집안의 어지러운 것들을 쓸어 내치는 것을 전상풀기라 한다.

(다) 액막이

액막이상 앞에서 사만이본풀이⁸⁾를 노래하고 그것을 근거로 액막이를 한다고 하여 붉은 수탉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 액막이를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이며 설화인 동시에 액막이를 할 때 불리는 무가이다. 사만이가 저승 차사들을 잘 대접하여 장수한 일을 근거로 내세워 저승 차사가 사람 목숨 대신 닭을 잡아 가게 함으로써 액을 막고 무사 안녕을 빈다.

III.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제주도의 굿에는 각박한 풍토,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저절로 형성된 신을 향한 신앙적인 면과 음악, 무용, 연극의 종합예술체제인 예술적인 면이 하나로 융해되어 있다.

즉, 제주 사람들의 오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초자연적 존재에의 순응을 통한 신앙적 본원과 예술의 원형을 살피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굿인 것이다.⁹⁾

따라서 이러한 제주도의 굿에 삽입된 굿놀이의 하나인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가무악과 극으로 통합 교육이 가능한 음악극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굿놀이가 실제 굿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굿놀이를 그대로 재연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화가 목적이므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음악극의 형식을 고려하여 개발 연구하였다.

1. 전상놀이의 교육과정 구성

전상놀이를 가무악과 극이 통합된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악기 및 장단 익히기,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배역 정하기, 미술작업, 전상놀이 실연의 6단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 60년사』 3권. 앞의 책. 151쪽.

<표 3>

전상놀이의 교육과정

차시	단계	학습활동	학습자료	주교과	관련교과
1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 감상 하기 • 단원의 학습 활동 파악하기 • 제주도의 민속놀이 알아보기 •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 장면별 내용 파악하기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 극본	음악	국어 사회
2	악기 및 장단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악기 알아보기 • 장단 익히기 • 악기로 장단 연주하기 	연물치기 영상, 무악기, 음반자 료, 장단보, 국악 기	음악	.
3~4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랫말 탐색하기 • 노래 부르기 •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 • 노래와 어울리는 춤 만들기 	음반자료, 악보, 악기, 극본	음악	.
5	배역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 배역 정하기 • 신체표현 만들기 	극본	국어	음악
6~7	미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별 무대 장치와 배경 만들기 • 소품과 의상 만들기 	민속극 전상놀 이 동영상, 극 본, 배경, 의상, 소품 제작 준비 물	미술	음악
8~10	전상놀이 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 하는 전상놀이 하기 • 감상 및 평가하기 	배경, 소품, 의상, 악기, 캠코더, 평 가지 등	음악	종합

가.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들려주기

전상놀이 교육과정의 첫 단계이자 1차시 수업안으로, 제주도의 궂놀이인 전

상놀이라는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이다.

(1) 학습 활동

- ▶ 제주도의 민속놀이(굿놀이) 알아보기
- ▶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 ▶ 장면별 내용 파악하기

(2) 학습 목표

- ▶ 제주도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인 굿놀이에 대해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 굿놀이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 ▶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 학습 자료

제주도의 여러 가지 민속놀이 가운데 굿놀이 <전상놀이>를 소개합니다. 굿놀이는 굿을 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굿놀이인 <전상놀이>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는 문헌자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전상놀이>가 우리 민족의 민속신앙이자 민속놀이인 굿놀이로 전승되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굿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전상놀이는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굿놀이로, 예전에는 제주 큰굿에서 활발하게 연행되어 왔지만, 점점 사라져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전통 민속놀이로서 탐라입춘굿놀이 때 연행되고 있고, 놀이패에 의해 민속극으로 재탄생되어 공연되고 있으며,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도 대표로 참가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상을 차지한 신이 ‘삼공’이라는 데에서 전상놀이를 ‘삼공맞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전상’이란 말은, 몇 번 실수를 하여 창피를 당하면서도 술을 마구 먹고, 감옥에 몇 번 출입을 해도 도둑질을 하는, 이처럼 안 해도 좋을 일을 벼룩처럼 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즉, 고쳐지지 않는 벼룩이나 병을 뜻하니,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전상’이고, 지각을 잘 하는 것은 ‘나쁜 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은 과제로 모두 가쁜장아기에 관한 동화나 이야기를 읽고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이 전상놀이는 가쁜장아기 이야기랍니다. 특히, 전상놀이에서 가쁜장아기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빗자루를 들고 나쁜 전상을 풀어내며, 좋은 전상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모질고 악한 전상을 쫓아버리는 삼공신, 즉 나쁜 인연을 털어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행운의 신이랍니다.

전상놀이에서는 거지들의 잔치 장면과 거지가 눈을 뜨는 장면이 핵심인데, 효성 깊은 심청의 정성으로 맹인 부모가 눈을 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과 많이 비슷하지요. 그럼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장이영성이서부는 윗마을에 살았고, 국문구청구부인은 아랫마을에 살던 거지였는데 둘은 부부가 되어 함께 구걸과 품팔이로 겨우 살아갔어요. 얼마 후 첫째 딸아이를 낳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은그릇에 죽을 쑤어 먹였다고 ‘은장아기’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 후,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밥을 해 먹여 ‘놋장아기’라 불렀지요. 마지막으로 막내 셋째 딸이 태어났고,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다 먹이니, ‘가쁜장아기’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세 딸이 태어나고 이상하게 운이 트어서 거지 부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딸들도 열다섯 살이 넘을 즈음, 하루는 부부가 너무 심심해서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물었어요. 큰 딸과 둘째 딸은 하늘과 땅

의 덕, 부모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했는데, 셋째 딸은 하늘과 땅의 덕, 부모의 덕도 있지만 자신의 덕 때문에 먹고 산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는 화가 나서 셋째 딸을 내쫓고, 얼마 후에 걱정이 되어 나가보려다 문에 눈을 부딪쳐 둘 다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한편 집을 나간 가쁜장아기는 밤이 되어 한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마를 캐서 들어온 마퉁이 삼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마를 삶아서 머리와 꼬리 부분을 부모에게 드렸지만, 셋째 마퉁이는 살이 많은 부분을 부모와 가쁜장아기에게 주자, 가쁜장아기는 셋째 마퉁이가 쓸 만한 사람임을 깨닫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가쁜장아기와 셋째 마퉁이는 마를 파던 곳에 구경을 갔다가 주위에 널려 있는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살림이 좋아지자, 가쁜장아기는 부모님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가 거지가 되어 방랑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 거지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결국 백 일이 되는 날에 부모를 만나, 자신이 쫓겨났던 땅임을 밝히자 부모는 깜짝 놀라 받아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고, 딸의 배려로 여생을 편안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 ▶ <삼공본풀이>를 직접 들려줄 수도 있지만, 가쁜장아기 이야기를 동화로 엮어낸 책이나 공연물이 많이 있으므로 미리 책을 읽거나 공연 비디오를 보고 줄거리를 파악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악기 및 장단 익히기

굿놀이에 쓰이는 제주 무악기를 소개하고, 제주 무속음악의 장단을 익히는

과정이다.

(1) 학습 활동

- ▶ 제주 무악기 알아보기
- ▶ 장단 익히기

(2) 학습 목표

- ▶ 제주 무악기를 살펴보고 육지의 악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 제주 무속음악의 장단의 유형을 알고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 장단의 기본박을 칠 수 있다.

(3) 학습 자료¹⁰⁾

제주도에서는 굿을 할 때 북, 설쇠, 대영(징), 장구, 바랑(바라), 요령 등의 무악기를 사용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연물’이라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을 ‘연물친다’고 합니다.

악기의 모양을 살펴보면, 북은 높이가 약 30cm, 직경이 30~45cm 정도로, 각 북면을 노끈이나 가죽 끈으로 양쪽 가죽을 번갈아 얹어맨 점이 육지의 북과 다르고, 북채는 30cm 정도의 굵은 대나무 밑동을 사용합니다.

설쇠는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무악기로, 직경이 약 15cm, 깊이가 약

10)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노재명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제주:제주도교육청, 1996).
강영아, 「제주 무악(巫樂)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천지왕, 맹감, 영감본풀이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07).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용왕맞이에 한하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巫歌研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6cm정도의 높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입니다. 채는 나무도막을 형겼으로
감싸고 그 위를 다시 가는 끈으로 촘촘히 엮어 맨 것을 사용합니다. 대영
은 옛날 제주도에서 세수할 때 쓰는 대야의 사투리 명칭에서 모양이 비슷하여
이름 붙여진 높으로 만든 악기로, 육지의 징과 비슷합니다. 직경은 약 30cm,
깊이는 약 8cm이며 위에 손잡이용 끈이 달려 있고, 채는 끝을 형겼으로 두껍
게 감아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장구는 직경이 약 30cm, 길이가 45cm 정도로 일반 장구보다 조금 작은 편인데, 나무통은 중앙 부분에서 3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기에 ‘3동막 살장구’라고도 합니다.

<사진 1> 북



<사진 2> 설쇠



<사진 3> 대영



<사진 4> 장구



<사진 5>

바랑



<사진 6>

요령



앞의 북, 설쇠, 대영은 심방이 굿을 할 때 악사들이 반주하는 연물치기 악기이고, 장구는 가창시의 반주악기이며, 바랑과 요령은 심방이 굿을 하면서 들고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바랑은 놋쇠로 만들고 비교적 사이즈가 작으며, 육지의 굿이나 절에서 사용하는 바라와 같습니다. 요령 역시 놋쇠로 만든 조그마한 방울입니다.

다음은 악기의 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악기의 주법을 살펴보면, 북은 주로 남자가 치며, 얇은 소쿠리나 바구니에 비스듬히 세워 놓고 양손에 북채를 각각 들고 북의 한 면만을 칩니다. 보통 북의 경우 춤 반주 연물치기를 할 때는 북의 오른 면을 사용하여 오른손과 왼손의 채로 연물치기를 하고,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 노래 반주를 할 때는 북의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한 심방의 굿노래에 대한 반주로서 북을 칠 때는 판소리의 북장단을 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가죽을 칩니다.

설쇠는 바구니 모양의 체를 엎어 놓아둔 그 위에 설쇠를 엎어 놓고 양손에 설쇠채를 각각 하나씩 들고 반복하여 내려치는 상하치기 주법으로 연주하는데, 맑고 높은 소리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대영은 둘레에 손잡이용 끈이 달려있어 한쪽 손으로는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굵은 채를 가지고 쳐 울리는 단순 주법으로 굵은 음을 울립니다.

장구는 오른손으로는 가늘고 긴 대나무로 만든 열채를 쥐고, 오른편 북편을 치며 변죽은 치지 않습니다. 왼손으로는 손바닥으로 북편을 칩니다.

바랑은 둑근 놋사발 두 개를 마주쳐서 소리를 내고, 요령은 수 개의 방울을 한데 묶어 흔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악기의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악기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북은 춤이나 소리 반주에 쓰이고, 설쇠는 단독으로 연주되지 않고 북, 대영과 함께 춤 반주 악기로 사용됩니다.

대영은 보통 북, 설쇠와 함께 춤의 반주 악기로 쓰이는데, 주로 장단 첫 박에 많이 치고, 장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무가 반주 악기로 심방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반주할 때 사용됩니다.

바랑은 불교적 색채가 있는 기원을 할 경우에 쓰이는데, 던져서 점을 치기도 하고, 요령은 주로 심방이 제상 앞에서 신을 청하거나 돌려보낼 때 다른 악기와 합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 중간 부분에 흔들어 사용합니다.

악기의 편성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속의 반주음악은 모두 타악기로 구성되는데, 보통 5명을 기준으로 큰 굿에서는 5명, 중간 굿은 2~3명이 합니다. 2명이 할 때는 장구나 북을 사용하고, 3명일 때는 북과 장구를 함께 사용합니다. 장구는 대체로 수심방이 많이 치는데, 설쇠와 징은 큰굿에서만 편성됩니다. 이처럼 굿 인원이 정해지는 것은 돈의 규모, 즉 경제적인 이유와 굿의 종류에 따라 인적구성이 달라집니다.

제주 무악기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제주 무속음악(무가)의 장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주도 굿에서는 장단 명칭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박자 유형으로 반주를 하는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 3소박 2박 한 장단의 형태이고, 시가 따위를 읊는 듯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형태, 3소박 4박 한 장단, 드물긴 하지만 2소박 4박 한 장단도 있습니다. 특히 <전상놀이>의 <삼공본풀이>는 2/4박자로 그 템포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의 반주 장단을 익혀서 악기로 연주해 봅시다.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는 2/4박자, 6/8박자의 가락과 우리가 랩을 하

는 것처럼 자유롭게 훑어대는 무반주의 자유리듬이 있습니다. 노래는 원곡을 토대로 편곡했기 때문에 장단은 실제 굿놀이에 쓰인 장단을 채보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1>은 6/8박자 가락의 장단으로 굿의 첫 제차인 초감제의 후반부 군웅덕답풀이 부분의 장단으로 조금 느리게 연주합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구음으로 불러보고 악기로 연주해 봅시다.

<악보 1>

6/8박자 가락의 장단11)

장단 채보 조영 배

조금 느리게

etc.

<악보 2>는 <삼공본풀이>의 주요 가락인 2/4박자 가락의 장단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구음으로 불러보고 악기로 연주해 봅시다.

<악보 2>

2/4박자 가락의 장단12)

장단 채보 조영 배

etc.

11) 조영배,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서울:국립국악원, 2000), 200쪽.

12) 조영배,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서울:국립국악원, 2000), 318쪽.

(4) 지도상의 유의점

- ▶ 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는 풍물악기와 굿에서 사용하는 무악기는 명칭을 비롯하여 모양이나 연주법이 다소 다른 점을 우선 사진이나 실물을 통해 설명하고, 실제 전상놀이의 실연에서는 학교에 있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물악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 굿에는 가창 반주의 무가 장단과 춤 반주의 무무(巫舞) 장단이 있는데, 굿의 제차에서 심방이 춤을 추거나 연희를 할 때 수반되는 음악을 연주할 때는 설쇠·대영·북의 세 악기인 삼물(三物)을 사용하나 편의상 음악극 <전상놀이>에서는 노래 반주의 무가 장단만 사용한다.
- ▶ 장단 익히기를 위해 소박의 개념은 미리 설명하고, 음악 교과를 통해 학습한 육지의 장단이 아닌 실제 굿놀이에 사용된 제주 무속음악 특유의 장단을 익히도록 한다. 단, 장단이 연주하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는 단순한 가락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
- ▶ 악기 연주는 단순히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주를 통해 음악적 개념 형성 및 연주력 향상과 연주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를 듣고 그 특징을 살펴보며, 음악극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를 익히는 단계이다.

(1) 학습 활동

- ▶ 노랫말 탐색하기

- ▶ 노래 부르기
- ▶ 노래와 어울리는 춤 만들기

(2) 학습 목표

- ▶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를 듣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 이야기를 토대로 노랫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바꿔 부를 수 있다.
- ▶ 노랫말의 내용에 어울리게 동작과 춤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학습 자료

<전상놀이>의 굿본이 <삼공본풀이>라고 해서 <삼공본풀이>의 악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가락이나 극의 흐름에 필요한 부분의 선율을 추출하여 편곡한 노래를 배워서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를 배우기 전에 일단 실제의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의 노래를 부분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면,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악보는 주로 2/4박자로 가창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풀이의 주요 줄거리를 자유리듬으로 매듭짓고 나서는 그 후 덕담풀이류의 가락이 삽입되어 있으며, 끝으로 9/8박자와 다시 2/4박자의 가락, 그리고 연이은 자유리듬의 가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¹³⁾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 점에 유의하며 빠르거나 노랫말, 자유리듬 같은 독특한 부분 등을 탐색해 봅시다. 굿의 첫 제차인 초감제 후반부에 삽입된 <군웅덕담풀이>와 <삼공본풀이>에 삽입된 <군웅덕담풀이>를 들어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13) 조영배,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서울:국립국악원, 2000), 14쪽.

1차시에서 <삼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면에 삽입된 노래를 들으며 노랫말을 탐색하고 각 장면별로 어떤 주제를 담은 노래인지 장면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노랫말을 바꿔서, 악기로 장단을 연주하며, 메기고 받는 부분으로 나눠서 다양하게 불러봅시다. 그리고 재미 있는 걸음걸이나 내용에 어울리는 춤 등을 만들어 표현해 봅시다.

장면 1에 사용된 <오늘 오늘 오늘은>이란 곡은 초감제 군웅덕답풀이의 처음 부분에서 12마디의 선율을 추출하여 6/8박자에 맞게 편곡하고 원래의 가사를 부분적으로 넣어 개사하였습니다. 이 곡은 음악극 전상놀이의 초반부에서 수십방이 굿을 올리는 날을 알리는 동시에 흥겨운 리듬감과 반복되는 가사로 전상놀이가 신명나게 시작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보 3> 【장면 1 :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

오늘 오늘 오늘은

월곡 채복 조 영 배

♩ = 47

오늘 오늘 오늘은 오Neal - 이 라 날-도 좋 - 아 오Neal이라

해 도 좋 아 - 오Neal이 요 - 달 도 좋 아 오Neal이라

구름 산 도 쉬 고 넘 저 - 한라 산 도 쉬 고 넘 자

장면 2에 사용된 곡은 삼공본풀이의 자유리듬 선율을 추출하여 편곡한 곡으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된 덕이 자기 덕이라는 가문장아기를 내쫓고, 힘들게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아왔지만 부모 은공도 모르고 자식을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부모의 허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훌러내리는 듯이 꺾어 내리며 불러줍니다.

<악보 4>

【장면2 : 부자가 되어 가문장아기를 추방하다】

원곡 채보 조 영 배
편곡 지 소영

딸애가 넉이 쫓아나와 일천진장석았주나 인간세상만사중에— 나같은 사람이 뜨이을까—

장면 3의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거지 장님도 전상>이라는 곡을 부릅니다.

이 곡 역시 초감제 <군옹덕답풀이>에서 극의 장면, 분위기, 느낌에 어울리는 적절한 선율을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16마디의 6/8박자 곡을 만들고,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는 침울한 분위기에 인생무상, 거지 장님도 다 자기 팔자, 자기 업보라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보 5> 【장면3 :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거지 장님도 전상

원곡 채복 조영 배
편곡 지소영

$\text{♩} = 45$

나무도 늙어 고목되면 놀던 새도 날아가고
꽃잎도 늙어 떨어 지면은 놀던 나비도 날아간다
우리네인생은 도랑잎에 이슬같은봄 한번나한번죽으면 그만이로구나
내전상이 나를 울려간다 나팔자 가 날울린다

장면 4의 <길 찾아>는 삼공본풀이의 중간 부분의 선율을 추출하여 편곡한 곡으로 집에서 쫓겨난 가쁜장아기가 작은 마퉁이를 만나 길을 묻게 되고 이에 길을 가르쳐 주는 작은 마퉁이의 노래입니다. 리듬을 타는 듯 재미있게 노래와 대사를 주고 받으며 부릅니다.

<의보 6> [장면 4 : 가믄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길 찾아

월곡채복 죽영 배

길 찾아

요 질로 내려 강 요 채 넘 영
요 디 헤 청 강 산 넘 고 물 넘 고

장면 4의 <마파난디>는 역시 삼공본풀이의 중간 부분의 선율을 추출하여 편곡한 곡으로, 가믄장아기와 작은 마퉁이가 마퉁이 형제들이 마를 파던 곳에 구경을 갔는데, 작은 마퉁이가 마를 파던 곳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의보 7> [장면 4 : 가믄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마파난디

월곡채복 죽영 배

마파난디

춘 마 통 이 마 파 난 디

말 똥 이 실 그 랑 허 고
 셋 마 통 이 파 난 - 디
 쇠 똥 만 - - - 가 특 허 고
 족 은 마 통 이 마 파 난 디 보 난
 금 이 여 은 이 여 가 득 하 주 나

(4) 지도상의 유의점

- ▶ 삽입된 곡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주요 선율에 장면과 내용에 어울리는 가사를 붙여 같은 선율에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다.
또한 추출한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작업은 원래 가사의 느낌을 되도록 살리되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방언을 적절히 넣어 자연스럽게 제주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학생들이 직접 노랫말을 만들어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불러보거나, 악기를 치며 불러본다던지, 느낌을 신체동작으로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노랫말을 동작이나 춤으로 표현할 때는 최대한 창의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게 하며, 노랫말을 바꿀 때에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룹 별로 만드는 기회도 부여하여 극의 장면에 어울리는 소재로 표현해 낼 수 있게 한다.
- ▶ 즉흥적인 창조 활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활동을 행함으로써 음악적 개념을 쉽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만든 대사나 노래는 직접 시연해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는 기회도 갖도록 한다.

라. 배역 정하기

전상놀이에 필요한 배역을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만드는 단계이다.

(1) 학습 활동

- ▶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 ▶ 배역 정하기
- ▶ 배역의 성격, 상황, 음향과 어울리는 몸짓 만들기

(2) 학습 목표

- ▶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 음악극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을 정해 대사를 낭독할 수 있다.
- ▶ 배역의 성격, 상황,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3) 학습 자료

전상놀이가 궂놀이라고 해서 음악극에 반드시 심방인 무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놀이굿의 형식을 알리고 극적인 전개를 위해 심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는데 장단을 반주할 악기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배역은 하르방 강이영성이서부(가쁜장아기의 아버지), 할망 국문구청구부인(가쁜장아기의 어머니), 큰딸 은장아기, 작은딸 놋장아기, 막내딸 가쁜장아기, 하르방(마퉁이 아버지), 할망(마퉁이 어머니), 큰 마퉁이, 셋 마퉁이, 작은 마퉁이, 동네사람들, 거지들, 수심방, 악기 연주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에 맞게 배역을 더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하나의 배역을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으며 관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나 중심역할이 분명 있지만 모든 등장인물이 함께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므로 남녀 구분을 떠나서 어느 역할이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재주가 필요한 배역을 위해 장기자랑 등을 통해 역할을 정할 수도 있고, 장단이나 노래를 먼저 익혔으니 학생들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배역을 정하기 전에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배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역이 정해지면 본인의 배역에 해당하는 극본의 대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역의 성격, 상황,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대사와 함께 표현해 봅시다.

가쁜장아기의 부모로 등장하는 하르방과 할망은 극중 역할이 주인공인 가쁜장아기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대사는 물론 노래도 하고 출연 횟수도 잣습니다. 따라서 대사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전달하고 노래도 자신있게 부르며 신체 동작도 크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친구가 적당합니다. 가쁜장아기의 언니로 나오는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극 중에서 막내 동생인 가쁜장아기를 시샘하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많은 인물입니다. 극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극본에 나와 있는 외모와 차림을 한 친구가 어울릴 것 같네요.

<전상놀이>의 주인공인 가쁜장아기는 당찬 제주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낳아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 덕도 크지만 자기 자신의 덕도 있다는 대답을 할 만큼 자신감 있고, 맘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용기도 있으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친 언니들을 혼내주는 대범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중 대사는 물론, 노래, 춤, 신체 표현 등 모든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퉁이 형제들은 마를 파는 고된 작업을 하는 점에서, 작은 마퉁이를 제외하고 일단 몸집이 큰 친구가 적당합니다. 또한 극중에서도 마퉁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소리를 천둥소리로 표현한 점에 비추어서 도 키나 둉치가 큰 친구들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퉁이는 후에 가쁜장아기와 결혼을 하여 연을 맺는 인물이므로 착하고 의젓하며 반듯한 청년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친구가 적당하겠습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 ▶ 배역은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통하여 나와 타인의 삶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이므로 그 설정에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배역은 음악극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므로 배역을 맡고 있는 개개인은 각자의 책임감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관심과 소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 학급의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배역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음악극이라는 것이 관객과 배우가 같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공연예술이라는 점에서, 관객이라는 배역을 설정함으로써 공연이 더 빛날 수 있고 상호간에 비교 감상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 모든 학생을 배우로 무대에 서게 할 경우,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수업

진행 및 학생통제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한 장면씩 맡아 실연할 수도 있다. 단 모둠을 만들 때에는 학생들을 이질적으로 구성하여 장면을 연출해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파. 미술작업

전상놀이에 필요한 무대 배경과 소품 및 의상 등을 만드는 단계이다.

(1) 학습 활동

- ▶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 ▶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논의하기
- ▶ 배경, 소품, 의상 만들기

(2) 학습 목표

- ▶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다.
- ▶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 ▶ 배경과, 소품, 의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

(3) 학습 자료

일단 배경이나 소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소장 여부를 반영하여 준비해 올 수 있는 소품은 최대한 가지고 오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전상놀이>에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소품과 의상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장면별로 이야기해 봅시다.

장면 1에서는 동네 어귀에 제상이 차려져 있고 수십방, 악사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동네, 마을이라는 무대 배경, 제상이라는 소품, 병풍, 천, 수십방의 의상 및 무구(巫具)인 신칼과 요령, 동네사람들의 의상, 악사들의 의상, 악기, 그리고 등장하는 할망과 하르방의 의상, 할망이 들고 나오는 빈 바구니, 후에 낳게 되는 아기를 표현하기 위한 아기 인형 3개와 포대기 3개 등의 소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네, 마을이라는 무대 배경은 간단히 커다란 전지 크기의 종이에 초가집과 나무, 풀 등을 그려 넣고 교실 벽면에 붙여놓습니다. 수십방의 의상은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로 어여한 의상을 입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한복 두루마기, 갓 등을 준비합니다. 신칼과 요령도 검색을 통해 그 모양을 보고 종이와 방울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제상 뒤에 병풍을 세워두면 좋은데, 병풍이 무겁기 때문에 종이로 접어 그림 등을 그려 넣어 만든 병풍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또 제상 주위에 알록달록한 색감의 기다란 천들을 줄에 나란히 걸어 두면 굿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데, 조각천은 주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합시다.

동네 사람들의 의상은 배경을 고려하여 한복이나 갈옷을 입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어려우면 상의와 하의의 색상 등을 맞춰 입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낙네들은 하의는 치마를 입던가 아니면 머리에 수건 등을 둘러 남정네들과 구분을 하도록 합시다.

악사들은 처음 등장부터 무대의 막이 내리기까지 한 자리에 앉아 반주 장단을 연주하게 되므로 역시 악사들의 의상도 한복이나 색상 등을 통일하여 입도록 하고, 하얀 도화지를 접어 삼각 모자를 만들어 써도 좋습니다.

할망과 하르방은 먹을 것을 얻어 다니는 처지이므로 역시 한복이나 갈옷이 어울리고, 깨끗하고 고운 옷보다는 헤어지고 낡은 듯한 의상이 적당합니다. 바구니나 아기 인형도 집에서 가져오고, 포대기도 담요나 현 이불 등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장면 2에서는 부자가 된 할망과 하르방의 집이 주 무대 배경이 됩니다. 역시 커다란 전지에 기와집이나 부잣집 안방(화려한 장롱 등) 등을 그리고, 안방 그림에는 방의 문도 반드시 그려 넣습니다. 이는 후에 할망과 하르방이 방문에 부딪쳐 눈이 멀게 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곱게 차려입은 할망과 하르방을 표현하기 위해 장면 1에서 갈옷을 입었다면 장면 2에서는 고운 한복을 차려 입도록 합니다. 또한 장면 1에서 지져분한 얼굴의 이미지였다면, 여기에서는 깨끗하게 얼굴도 닦고 할망인 경우, 빨간 립스틱을 발라 입술을 강조하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망과 하르방의 딸로 등장하는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아기는 시나리오 상에서 은장아기는 몸집이 크고, 놋장아기는 파마머리를 했으며, 가믄장아기는 곱게 화장을 한 인물로 등장하므로, 그에 맞게 꾸미고, 의상 역시 부잣집 딸을 나타내기 위해 화려하고 고운 한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3의 스토리는 장면 2와 거의 이어지는데, 집에서 쫓겨난 가믄장아기에게 거짓말을 하여 지네와 벼섯으로 변하는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를 나타내기 위해 신체 동작으로 표현해도 좋고 지네나 벼섯을 그린 그림을 돌돌 말아 몸에 갖고 있다가 전신에 붙여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좋겠습니다. 신체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잘 표현한다면 소품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또한 집에서 쫓겨난 가믄장아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집 밖인 마을 근처나 금 등이므로 기존에 사용했던 배경 그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장면 4의 주 무대는 마퉁이 형제들의 집과 마퉁이 형제들이 마를 파는 곳입니다. 마를 파는 일을 하는 마퉁이 형제들의 집은 잘 살기보다는 적당하게 초라한 초가집 정도가 어울리고 마퉁이 형제들의 마를 파는 곳도 마을 금 등이므로 역시 기존에 사용했던 배경 그림을 이용합니다. 마퉁이 형제들은 마를 파는 일을 하는 작업 의상으로 갈옷이 적당하고, 여의치 않으면 역시 색상 등을 통일합니다. 머리에 하얀 땃나 수건 등을 둘러서 일을 하는 남정네들임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를 파는 작업에 필요한 팽이와 바구니는 가져오고 마는 색깔 주름지 등을 부풀려 기다랗게 마의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마퉁이 형제들의 부모인 할망과 하르방은 갈옷이나 소박한 한복 등을 입습니다.

장면 4의 후반부로 가면 가믄장아기와 작은 마퉁이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청실과 홍실을 목에 걸어 연을 맺는 것을 표현하고, 그 후에 마퉁이 형제들이 마를 파던 곳을 가서 발견하게 되는 말뚱과 쇠뚱은 찰흙이나 지점토를 색칠하여 뚱 뎅어리처럼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마퉁이가 마를 파던 곳에서 발견한 금은보화는 따로 만들기 보다는 금색 천과 은색 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장면 5에서는 부자가 된 가믄장아기와 작은 마퉁이의 집이 배경이므로 역시 기존의 배경 그림을 이용합니다. 가믄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깨끗하고 고운 한복으로 차려입고, 거지들과 장님 거지 부부는 낡고 헤지고 찢어진 옷과 더럽고 지저분한 얼굴 분장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후에 거지 부부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게 되므로 안에 다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도록 합니다. 지팡이는 가져오되, 없으면 검고 기다란 우산 등을 이용하고, 비는 교실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잔칫상에는 술과 음식들이 있는데 장면 1에서 세상을 준비하며 같이 마련하도록 합니다. 음식들은 과일이나 간단한 것들로 준비하고 나중에 놀이가 모두 끝난 후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그림은 모둠별로 나눠 협동화로 그리도록 하고, 각 장면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 등은 의논하여 가지고 올 것은 최대한 가져오고 만들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만 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 ▶ 배경, 의상, 소품 등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며 만드는데 필요

한 재료나 방법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단, 학년을 고려하여 교사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 배경이나 의상, 소품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놀이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극의 생동감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품 준비에만 연연하면 극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극을 망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이나 시간적 여유를 생각해서 기본적인 소품으로만 극을 꾸밀 수도 있고, 소품이나 배경 없이 다른 요소들로 배경이나 소품을 대신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음악극이라는 것 자체가 별도의 소품이나 의상 없이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학교안의 수업이라는 무대에서는 음악극은 의상이나 소품을 더더욱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대사나 몸짓을 통해 표현해 내는 고차원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 소품은 무대 및 공연에 알맞은 규모이어야 하므로, 음악극에 필요한 소품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보관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 ▶ 장면1에서 굿판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굿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굿판의 이미지들을 구상해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

바. 전상놀이의 실연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를 실연하고, 감상 및 평가하는 단계이다.

(1) 학습 활동

- ▶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발표하기
- ▶ 감상하고 평가하기

(2) 학습 목표

- ▶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를 발표할 수 있다.
- ▶ 적극적인 태도로 전상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 ▶ 전상놀이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학습 자료

【장면 1 :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

-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며 제상 앞에서 굿을 한다. <악보 3>
- 할망과 하르방이 외롭고 가난한 처지를 동정하며 함께 살기로 한다.
- 할망이 세 딸을 낳는다.

【장면 2 : 부자가 되어 가믄장아기를 추방하다】

- 부자가 된 부부가 세 딸을 불러 부모의 은공을 묻는다.
- 자신의 복이라고 대답한 가믄장아기를 내쫓는다. <악보 4>

【장면 3 :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 가믄장아기를 내쫓으려는 은장아기는 지네, 놋장아기는 버섯으로 변한다.
- 부부가 딸들을 찾아 나서다 문에 부딪혀 장님 거지가 된다. <악보 5>

【장면 4 : 가믄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 집에서 쫓겨난 가믄장아기가 마퉁이 형제들을 만나고 작은 마퉁이의 친절한 길 안내를 받아 마퉁이 집에 간다. <악보 6>
- 집으로 돌아온 마퉁이 형제들이 마를 삽아 부모님과 같이 먹는다.
- 마퉁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가믄장아기는 친절하고 효성이 깊은

작은 마퉁이와 혼인을 하게 된다.

- 가문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마를 파던 곳을 구경하다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 <악보 7>

【장면 5 : 거지잔치를 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다】

-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와 작은 마퉁이 부부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석달 열흘 백일동안 거지잔치를 벌인다.
- 잔치 마지막 날에 거지 장님이 된 부모님을 만나고, 거지 장님 부부는 딸 가문장아기와 상봉하는 순간 눈을 뜨게 된다.
- 할망과 하르방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쁜 전상은 쓸어내고 좋은 전상은 들어오게 막대기로 바닥을 치고 비로 쓸어낸다.
- 할망과 하르방은 입었던 현 옷을 벗어버리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합창한다. <악보 3>

(4) 지도상의 유의점

- ▶ 배역의 성격, 극의 상황, 노래의 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대사와 표현하되, 동작의 표현은 사실적이기보다는 과장되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이에 참가하므로, 놀이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실연 후에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실연 단계는 배우, 악사, 관객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해 나가는 것임을 인지시켜 춤과 추임새를 하며 홍겨운 활동이 될 수 있게 한다.

2. 전상놀이의 극본 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상놀이는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는 첫

째 마당, 부자가 되어 가믄장아기를 추방하는 둘째 마당,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는 셋째 마당, 가믄장아기가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는 넷째 마당, 거지잔치를 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는 총 다섯 개의 마당으로 극본을 구성하였고, 여기에 서는 가무악과 극의 통합적인 대본을 제시한다.

* 수십방의 해설로 극이 시작된다.

흔저옹서예~

요말은 서울말로 어서 오세요~

다 같이 따라흡써~ “흔저옹서예~” 한번 더 “흔저옹서예~”

전상놀이에 놀려 오신 걸 환영행쑤다.

【장면 1】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

무대 한 쪽에 제상이 차려져 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악사들이 앉아 있다.

▶ 수십방은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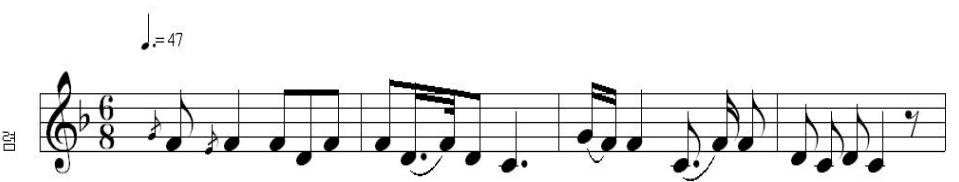
수 십 방 에이~(요령을 흔든다) 날은 어느 날 올 금년은 해는 기축년
들은 입동 시월들 오년은 열이틀날.

▶ 수십방은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고, 이어서 노래 부른다. 후렴구는 동네 사람들도 흥겹게 다 같이 부른다.

<악보 3>

오늘 오늘 오늘은

원곡 채보 조영 배
편곡 지소영



오늘 오늘 오늘은 오널 - 이 라 날-도 좋 - 아 오널이라

해 도 좋 아 - 오널이 요 - 달 도 좋 아 오Neal이라

주름 산 도 쉬고 넘 저 - 한라 산 도 쉬고 넘자

▶ 수십방은 상 앞에 세 번 절을 하고, 동네사람들은 서서 반절을 한다.

수 십 방 윗마을 강이영성이서부, 아랫마을 국문구청구부인, 마퉁이
형제들,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쁜장아기, 나가는 천상, 들어

오는 전상. 글흐기도 전상, 활흐기도 전상, 제주도 전상놀이
웨다~

- ▶ 수심방은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며 퇴장하고, 동네사람들도 퇴장한다.
- ▶ 무대 한 쪽에 빈 바구니를 든 할망과 하르방이 등장한다.

하 르 방 할망, 배고프고.

할 망 하르방, 나도 배고파.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하 르 방 할망, 어디 올라가는 할망인고.

할 망 우리집이 가난한 난 웃마을이 풍년이 랜 혼난 그리 올라감이라.
하르방은 어디 감서.

하 르 방 아랫마을도 흉년들었구나이.

할 망 흉년 들고말고.

하 르 방 나는 웃마을에 그냥 비도 안 오고 농사가 다 망해부난.

할 망 다 망해부렀구나이. 아이고.

하 르 방 이제 어디 얻어먹을 디도 없고 아랫마을 가믄 좀 얻어 먹어지카.

할 망 아이고, 하르방. 아랫마을도 예, 비도 안 오고. 보리도 바짝 말라
막 가난허여. 난 웃마을에 뭐 얻어 먹으래 가젠 혼난.

하 르 방 아이고. 근디 할망 혼자라.

할 망 (얼굴을 붉히며) 훌 할망이우다.

하 르 방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도 훌 하르방이라.

- ▶ 할망과 하르방은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마주 잡는다.

- ▶ 잠시 후, 할망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힘들어 한다.

할 망 아이구, 배야. 아이구, 아이구.

하 르 방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기 배었구나.

- ▶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 하르방이 할망 치마 품에서 포대기에 쌈 아기 인형을 꺼내 안는다.

하 르 방 할망, 뜰이라.

- ▶ 하르방이 아기를 할망에게 건넨다.

할 망 (아기를 받아 안고) 곱 닥한 뜰 아이우다.

(관객에게 다가가) 안아봅씨양. 우리 아기 참 예쁘지예.

- ▶ 할망은 포대기에 쌈 아기를 다시 하르방에게 건넨다.

할 망 (잠시 후 또 배를 움켜잡고) 아이고. 아이고.

- ▶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 하르방은 안고 있던 아기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할망 치마 품에서 다시 포대기에 쌈 아기 인형을 꺼내 안는다.

하 르 방 (아기울음 소리가 나오 하르방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할망, 또 뜰이라.

- ▶ 하르방은 두 아기를 양쪽에 안아 달랜다.

할 망 (또 배를 움켜잡고) 아이고.

하 르 방 (희망에 가득찬 목소리로) 이젠 아들 나크라.

▶ 할망이 자신의 치마 품에서 포대기에 쌈 아기 인형을 꺼내 안다.

하 르 방 (아기를 슬쩍 보더니) 아이고 집안 망해부렸져.

▶ 하르방은 허탈해 하며 두 아기를 안은 채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고 할망은 울면서 아기를 안고 달랜다.

【장면 2】 부자가 되어 가믄장아기를 추방하다

▶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린다.

동네사람1 웃마을 국문구청구부인댁 막내딸 가믄장아기 낳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말도 샀댄.

동네사람2 경 가난해신디, 뜰래미들 낳고 복 받아신게.

동네사람3 (관객들을 바라보며) 뜰애기들 많이 낳읍씨예.

▶ 동네사람들 퇴장하고 곱게 차려 입은 할망과 하르방이 등장한다.

하 르 방 할망, 우리 뜰들 잘 낳안 잘 키우난 좋은 집도 나오고.

할 망 좋은 밭도 나고.

하 르 방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렇지.

하 르 방 경 말양 우리 뜰들 불령 소개도 하고 누게 덕으로 살았느냐 흔
번 들어보주.

할 망 경 호주.

할 망 큰뜰아가-

▶ 하르방보다 덩치가 큰 은장아기 등장한다.

하 르 방 너 이래 와서 그레 앉으라.

은장 아기 예.

하 르 방 요 뜰년이 아방보다 더 크다이. 너 누구 덕으로 탄생을 헤고 이
제까지 누구 덕으로 사는 줄 알겠느냐?

은장 아기 하늘님의 덕, 땅님의 덕, 부모님의 덕으로 삽니다.

하 르 방 (빙그레 웃으며) 오냐. 오냐. 기특하다. 이번이랑 셋뜰 불러보주.

할 망 셋뜰아가-

▶ 은장아기 퇴장하고, 파마머리를 한 놋장아기 등장한다.

하 르 방 너 이래 와 보라. 너는 인간에 탄생헐 때, (놋장아기의 파마한 머
리를 보더니) 너 어명핸 머린 빠마했나?

하 르 방 헛끔 낫다. 계난 년 누구 덕으로 탄생을 헤고, 누구 덕으로 자란
줄 알암서?

놋장 아기 하늘님의 덕, 땅님의 덕, 부모님의 덕입니다.

하 르 방 (활짝 웃으며) 오냐. 오냐.

할 망 (웃으며) 아이고. 너도 착하다.

하 르 방 이제랑 우리 막둥이, 잘 난 나두난 부자로 살았주. 가믄장아기야.

▶ 놋장아기 퇴장하고, 곱게 화장한 가믄장아기 등장한다.

하 르 방 (가믄장아기의 얼굴을 만지며) 아이구 맨질맨질. 우리 얘기 연지

도 호끔 발랐구나. 너는 누구 덕으로 탄생하고, 이제까지 크기는
누구 덕으로 큰 줄 알겠느냐?

가쁜장아기 하늘님, 땅님, 부모님 덕, 그리고 제 덕에 삽니다.

하 르 방 (버럭 화를 내며 때릴 듯이) 에이 이년, 혼저 나가라.

▶ 가쁜장아기 도망가듯 무대 구석으로 이동하고 호느낀다.

하 르 방 (땅을 치며 통곡하듯이) 아이고. 경해여도 요년은 이제까지 할망
하고 나허고 힘들게 벌영 맥이단 보난, 지 덕이랜 햄구나.

할 망 (걱정스런 눈빛으로) 요년 내쫓겨도 잠자고 품 들어올거라 마씀.

▶ 할망은 실망한 하르방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하르방이 노래한다.

<악보 4>

원곡 채보 조 영 배
편 곡 지 소 영

딸애가 놓이셨거나 우며 일천진 징섞었거나 인간세상민사중에— 나같은 사람이 또있을까—

【장면 3】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 ▶ 동네 사람들은 퇴장하고 할망과 하르방이 무대에 남는다.
- ▶ 여전히 가쁜장아기는 무대 한쪽에서 웅크려 흐느낀다.

할 망 저 은장아가-

은장 아기 (무대로 나오며) 예.

할 망 (걱정스런 목소리로) 저기 보리밥 가져당 가쁜장아기 백여주게
데령 오라.

은장 아기 (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가쁜장아기가 있는 곳을 향해) 가쁜장아
기야, 빨리 달아나라. 어멍, 아방이 너 잡으래 왔서.

가쁜장아기 (자신을 속이는 은장아기를 노려보며) 거짓말, 은장언니는 욕심
쟁이. 바윗돌 밑의 지네로 변해불라.

- ▶ 은장아기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더니 지네가 되어 지네흉내를 내며 자연
스럽게 퇴장한다.

할 망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자) 놋장아기야, 너 이래 오라.

놋장 아기 (무대로 나오며) 예.

할 망 너가 장 가쁜장아기 데령 오라.

놋장 아기 (가쁜장아기가 있는 곳을 향해 능청스럽게) 가쁜장아기야, 빨리
달아나라. 어멍, 아방이 너 때리젠 햄서.

가쁜장아기 (자신을 속이는 놋장아기를 노려보며) 아니야, 아니야. 다 거짓말
이야. 놋장언니도 너무 햄서. 거름 위에 벼섯이나 되불라.

- ▶ 놋장아기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더니 벼섯이 되어 벼섯모양을 흉내내며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 ▶ 할망과 하르방은 무대 위에서 애타게 딸들을 기다린다.

할 망 (걱정스런 목소리로) 무사 영 아무도 안 왔시니.

하 르 방 이제랑 우리가 찾아뵙주.

- ▶ 할망과 하르방은 직접 나가 찾으려고 급히 문을 밀치다 문 귀퉁이에 눈을 부딪쳐 장님이 되고 만다.
- ▶ 할망과 하르방은 앞이 안 보이는 척 두 손을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며 넘어진다.
- ▶ 가쁜장아기는 무대 한쪽 멀리서 거지 장님이 된 부모님을 바라보며 슬퍼한다.
- ▶ 동네사람들이 등장해 거지 장님이 된 할망과 하르방을 보며 수군거리다 이어서 합창한다.

<악보 5>

거지 장님도 전상

원곡 채보 조 영 배
편곡 지 소 영



나무도 늙어 고목되면 놀던 새도 날아가고

꽃잎 도는 어 떨어 지면은 놀던 나비도 날아간다
 우리네인생은 도랑잎에 이슬같은몸 한번나한번죽으면 그만이로구나
 내전상이 나를 울려간다 나 팔자가 날울린다

【장면 4】 가쁜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 ▶ 동네사람들, 할망, 하르방이 퇴장하고 가쁜장아기가 길을 걸으며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무대 가운데로 이동한다.
- ▶ 무대 한쪽으로 퉁퉁퉁퉁 하는 마파는 소리를 내며 큰 마퉁이가 등장하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마를 파는 시늉을 한다.

가쁜장아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바님 눈 밖에 나고 어머님 눈밖에도 나난, 이거 나온지도 연 삼일이 넘어가고,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퉁퉁하는 소리에 놀라) 아이구 요디 어디 마파는 소리가 통통남구나. 이거 어디 마퉁이 아니우꽈?

큰 마통이 (놀라며) 이거 어멍허연.

가쁜장아기 지나가는 여정네인데, 해는 일락서산에 다 지고, 어디 거처할 데라도 촛아가잔 허난.

큰 마통이 (정색을 하며) 어멍해연 지집년이 남정네 마 파는 데 와서 질을 물엄시니, 딴데 강 알아보라.

▶ 큰 마통이 퇴장하고, 무대 한쪽으로 통통퉁퉁 하는 마 파는 소리를 내며 셋 마통이가 등장하고 한 손에 팽이를 들고 마를 파는 시늉을 한다.

가쁜장아기 아이고, 어멍허믄 조코. 집에서도 쫓겨나고, 큰 마통이도 질을 안 가르쳐 주고, 셋 마통이 안티나 강 들어보저. 아이구 지나가는 여정네인데, 해는 일락서산에 다 지고.

셋 마통이 (꽤씸한 듯) 생긴 모냥은 멀쩡현디, 어멍핸 여정네가 남자가 마파는 데 와서 질을 물엄시니. 에잇, 패씸현 거.

▶ 셋 마통이 퇴장하고, 무대 가운데로 통통퉁퉁 하는 마 파는 소리를 내며 작은 마통이가 등장하고 한 손에 팽이를 들고 마를 파는 시늉을 한다.

가쁜장아기 아이구, 큰 마통이도 셋 마통이도 아니 가르쳐 주난, 죽은 마통이 안티나 강 물어보저. 여정네가 지나가는디 해는 일락서산에 다 지난, 흐끔 쉬게 거처나 마련해줍서.

작은마통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이구, 색시 모냥 곱기도 곱다. 경 말양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지내잔?

가쁜장아기 (꾸벅꾸벅 머리를 숙이며) 고맙수다. 고맙수다.

▶ 작은 마통이는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며 길을 가르쳐 주고, 가쁜장아기는

옆에서 귀 기울이며 듣는다.

- ▶ 두 사람은 어깨를 들썩들썩, 양손을 앞으로 뻗어 좌우로 흔들거리며 리듬을 타는 듯 노래와 대사를 주고 받는다.

(작은마퉁이가 부른다.)

<악보 6>

길 찾아

원곡재본 조영 배
편곡자 소영

요 질로 내려 강 요 채 넘 앙

가쁜장아기 어디 마쯤.

(작은마퉁이가 다시 부른다.)

요 질로 내려 강 요 채 넘 앙

가쁜장아기 (리듬감을 타며) 그디 가민.

(작은마퉁이가 부른다.)

A musical score for a Korean童谣 (children's song). It features a single melodic line on a staff with a treble clef. The notes are primarily eighth notes, with some sixteenth-note pairs and a single sixteenth note. Below the staf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요 디 헤 청 강 산 남 고 물 남 고'. The lyrics are arranged in two lines: '요 디' and '헤 청 강 산 남 고' on the first line, and '물 남 고' on the second line.

가쁜장아기 (리듬감을 타며) 산 넘고, 물 넘고.

작은마퉁이 거기서 노일이 살암시매, 강 할망신디 부탁허라.

가문장아기 (밝은 표정으로) 아이고, 고맙수다.

작은마퉁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기여. 기여.

- ▶ 가믄장아기는 다시 길을 떠나는 듯 주변을 서성거린다.
 - ▶ 작은 마퉁이는 퇴장하고, 무대 한쪽으로 하르방(마퉁이 아버지)과 할망(마퉁이 어머니)이 등장한다.
 - ▶ 가믄장아기와 하르방, 할망이 무대 중앙에서 만난다.

할망거 누게라?

가쁜장아기 지나가는 여정네가 됩네다마는, 흐루밥만 둑엉가게 해줍서.

하 르 방 아이구, 우리집인 큰 마퉁이, 셋 마퉁이, 죽은 마퉁이 셋이나
이성 누엉 좀잘 방 었다.

가믄장아기 (할머니 옷을 불잡고 애원하듯이) 어디 정제 그더라도 빌려줄서.

할 망 (손가락으로 무대 한쪽을 가리키며) 어서 계간 저기라도 쓰라.

가쁜장아기 (기뻐하며 할머니 손을 붙잡고) 고맙수다. 아이고, 고맙수다.

▶ 우당탕탕하는 소리를 내며 손에 마를 든 마퉁이 형제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가쁜장아기 (큰 소리에 놀란 듯) 아이구, 저추룩 천둥소리 내명 오는 이가 누게짜?

하 르 방 우리 큰 마퉁이, 셋 마퉁이, 죽은 마퉁이가 마 파고 들어오는 소리여.

큰 마퉁이 아바님아.

셋 마퉁이 아이구, 어머님아.

할 망 (마퉁이 형제들을 보듬으며) 아이구, 나 아들들.

작은마퉁이 (마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 강 마나 삶아 옵주.
(관객을 향해) 이거 무신 가스레인지라도 이서야 삶지.

▶ 작은 마퉁이는 무대 한 쪽으로 가서 마를 삶는 시늉을 하고 곧 다시 바구니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큰 마퉁이 (바구니에서 마를 하나 꺼내어) 아바님, 어머님아. 저보다 빨리 나서 많이 드셔지난, 마 모가지나 먹읍서.

▶ 큰 마퉁이는 부모님께 마의 머리 부분을 조금 떼어 드리고 나머지는 혼자 야금야금 다 먹는다.

▶ 가쁜장아기는 쫓쫄 거리며 지켜본다.

셋 마퉁이 (바구니에서 마를 하나 꺼내어) 아바님, 어머님아. 두 분은 오래

살면서 많이 드셔지난 마 꿀랭지나 먹읍서.

- ▶ 셋 마퉁이는 부모님께 마의 꼬리 부분을 조금 떼어 드리고 나머지는 혼자 야금야금 다 먹는다.
- ▶ 가쁜장아기는 계속해서 쯧쯧 거리며 지켜본다.

작은마퉁이 (바구니에서 마를 하나 꺼내어) 아바님, 어머님아. 우리들 낳았 기르려고 열매나 공을 들였고, 또 사시면 얼마나 사실꺼라예. 그자 혼저 혼저 많이 드십씨.

- ▶ 작은 마퉁이는 마의 양쪽 끝은 조금 떼어놓고 부모님께 살이 많은 부분을 모두 드린 후 자기 것을 먹는다.

가쁜장아기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힌 채 작은 마퉁이에게 다가가며) 우리 부부 인연 맷으면 어떻합雾霾까.

작은마퉁이 (활짝 웃으며) 좋주.

- ▶ 무대 한 쪽에 있던 청실을 큰 마퉁이가 작은 마퉁이 목에, 홍실을 셋 마퉁 이가 가쁜장아기 목에 두른다.
- ▶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퇴장한다.

가쁜장아기 천지도 붉으신디 우리 마파난 디나 구경가게 마씀.

작은마퉁이 (웃으며) 게민 우리 큰 성님 마파난 디나 가보카?

가쁜장아기 (작은 마퉁이에게 팔짱을 끼며) 풀짱 끼영.

작은마퉁이 (웃으며) 풀짱 끼영.

- ▶ 둘이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무대 가운데로 이동한다.
- ▶ 동네사람들 무대 한쪽에 등장하여 합창한다.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도 노래 부른다.

<악보 7>

마파난디

원곡재보 조영 배
편곡 지소영

큰 마 통 이 마 파 난 디

(동네사람들은 말똥을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가 있는 바닥으로 던지고,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듯 코를 쥐어 잡는다.)

말 똥 이 실 그 랑 허 고

A musical score for the Korean phrase "셋마통이파난디". It features a treble clef staff with five measures. The first measure contains a dotted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note. The second measure contains a dotted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note. The third measure contains a single quarter note. The fourth measure contains a quarter note connected by a beam to another quarter note, which is then followed by a half note. Below the staf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셋 마 통 이 파 난 - 디.

(동네사람들은 쇠똥을 가믄장아기와 작은 마퉁이가 있는 바닥으로 던지고,
가믄장아기와 작은마퉁이는 코를 쥐어 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A musical score for a Korean children's song. It features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 eight measures,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The notes are primarily eighth notes and sixteenth notes. Below the staf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줄 으 마 퉁 이 마 파 날 디 복 날.

(무대 양쪽에서 금색 천과 은색 천을 잡고 파도가 출렁거리듯 움직이고, 가쁜장아기와 작은마퉁이는 놀라고 기뻐서 웃으며 팔짝팔짝 뛴다.)

A musical score for 'Gumiyeon' in G major.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uses a treble clef and has a tempo marking of 120 BPM. The bottom staff uses a bass cle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가쁜장아기 (은색 천을 붙잡고) 아이구. 요거 봅서. 돌멩이가 은이고,
작은마퉁이 (금색 천을 만지작거리며) 금이로구나.

▶ 출렁거리는 금색천과 은색천에 둘러싸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 부른다.

금 이 여 은 이 여 가 득 하 구 나

【장면 5】 거지잔치를 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다

▶ 무대에는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만 남는다.

가쁜장아기 (슬픈 얼굴을 하며) 우리가 천하 거부로 잘 살아 지난, 벅은 이도
입은 이도 아바님, 어머님 덕이니.

작은마퉁이 (뭔가 떠오른 듯) 걸인 잔치나 해여?

가쁜장아기 (놀라 눈물을 닦으며) 예?

작은마퉁이 (뭔가 결심한 듯) 석달 열흘 백일간 걸인 잔치나 해영.

가쁜장아기 걸인 잔치나 해영.

작은마퉁이 아바님, 어머님 찾아뵙주.

가쁜장아기 (기뻐서) 예. 경험주.

작은마퉁이 (큰 소리로) 자, 풍악이나 울려라.

작은마퉁이 (큰 소리로) 떨어진 물건 없이 다 졸리고.

가쁜장아기 (미소 지으며) 다 출리고.

작은마통이 (큰 소리로) 맛舛은 음식만 출령.

가쁜장아기 (좋아하며) 예.

▶ 동네사람들 등장하여 잔치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 거지들이 등장하여 술과 음식을 먹는다.

작은마통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석달 열흘 백일로 잔치를 흐는디, 흐를가
도 아니오고 이틀 석달 열흘이 지나가도 아니오고.

가쁜장아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다) 저기 봅서. 저디 골목으
로 두 부부가 거느려 오는 게 꼭 우리 아바님, 어머님 닮수다.

작은마통이 (멀리 손으로 가리키며) 아이고 저 사람 말했주. 나도 닮다.

▶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통이는 무대 한쪽으로 이동한다.

▶ 거지 장님 부부가 지팡이를 짚으며 무대로 등장한다.

하 르 방 할망, 이디 답고 이.

할 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소리가 들각들각 납니다.

▶ 거지들을 접대하며 일을 하던 동네사람 중 한 명이 거지 장님 부부에게 다
가간다.

동네사람4 두 늙은이가 막뎅이 지프곡 어명허연 이딜 촇아 옵데가?

하 르 방 석달 열흘 백일을 잔치 혔다 행 흐끔 얻어 먹어보카 허연 이디
끄장 왔수다.

동네사람4 고생허명 잘 촉아 왔수다. 영 들어왕 앓음서.

하 르 방 할망, 들어왕 앉으랜. 가 보주.

할 망 맹심협서양. 는려집니다.

▶ 동네사람 몇 명과 거지 장님 부부만 남고 무대에 있던 나머지 동네사람들과 거지들은 모두 퇴장한다.

▶ 여전히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는 무대 한쪽에 서 있다.

동네사람4 (동네사람5에게) 안방으로 청허여 들이라. 목욕 깨끗이 흐고.

할 망 하르방, 안테레 오랜.

하 르 방 아이고, 게매. 가 보주.

▶ 동네사람5와 동네사람6이 할망과 하르방의 목욕을 시키는 듯 온 를을 닦아 주고 무대 가운데 앉힌 후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내온다.

하 르 방 (음식들을 보고 신나서) 할망, 이거 문직아 봐. 무스것고, 많이 도 출려신개.

할 망 (좋아하며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다.)

▶ 가쁜장아기와 작은 마퉁이가 와서 옆에 앉는다.

작은마퉁이 (하르방에게 잔을 권하며) 이 술 한 잔 들명, 하르방님네 살아난 말이나 줄읍서 듣게.

▶ 가쁜장아기는 옆에서 흐느끼며 부모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할망은 여전히 음식을 먹느라 바쁘다.

하 르 방 옛날옛날 옛적에 나 장이영성이서부, 우리 할망 국문구청구부인
살았는데, 큰딸 은장아기, 셋딸 놋장아기, 죽은 딸 가믄장아기...

가믄장아기 (큰 소리로 울며 달려든다) 아이고, 아바님, 어머님아. 나가 가믄
장아기우다.

▶ 하르방은 술잔을 들어 먹으려다 놀라 잔을 떨어뜨리며 눈을 번쩍 뜨고,
할망은 음식을 먹다 놀라 멈추며 눈을 뜬다.

하 르 방 (눈물을 흘리며 가믄장아기를 껴안는다)

아이고 우리 가믄장아기!

할 망 (눈물을 흘리며 가믄장아기와 하르방을 껴안는다)

아이고 우리 딸!

하 르 방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서) 자, 이제랑 나 즈순덜 촛아바사켜.

하 르 방 (무대를 한 바퀴 돌며 관객을 향해 지팡이로 바닥을 때린다) 요
거, 요놈, 나가 오좀 똥 치우멍 키운 거로구나.

할 망 즈순덜 돌아바시난 이젠 집안이나 돌아보져.

할 망 (비를 들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어지러운 것들을 쓸어낸다)
요거, 요거! 전상이여.

하 르 방 좋은 전상이랑 집안으로 들어곡, 모질고 악한 전상이랑 바깥으
로 내돌리자.

▶ 할망과 하르방은 입었던 현 옷을 벗어버린다.

▶ 등장인물 모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같이 노래 부르며 극을 마친
다.

<악보 3>

오늘 오늘 오늘은

원곡 채보 조영 배
편곡 지소영

후렴

$\text{♩} = 47$

오늘 오늘 오늘은 오널 - 이 라 날-도 좋 - 아 오널이라

해 도 좋 아 - 오널이 요 - 달 도 좋 아 오널이라

구름 산 도 쉬고 넘 저 - 한라 산 도 쉬고 넘자

IV. 전상놀이의 교수·학습 과정안

1. 단원명 : <전상놀이>

2. 학습 개관

본 단원은 제주도에 전해 오는 끗놀이에 담긴 멋과 정신을 체험과 감상을 통해 배우게 된다. 특히 전상놀이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전통문화의 멋을 체험하여 기능을 익히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1/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전상놀이 교육과정의 첫 단계이자 1차시 수업안으로, 사회교과와 관련하여 끗놀이라는 제주도의 민속놀이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조상들이 왜 그러한 끗놀이를 즐겼는지 그 속에 담긴 생활모습 등을 알아보며, 국어교과와 관련하여 전상놀이의 끗본인 삼공본풀이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 재차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며 장면별로 내용 및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가쁜장아기 이야기를 동화로 엮어낸 책이나 공연물이 많이 있으므로 미리 책을 읽거나 공연 비디오를 보게 함으로써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전상놀이 1/10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음악	차시	1 / 10	시간	4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인 굿놀이에 대해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굿놀이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 극본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단원 도입	흥미유발 단원의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 감상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감상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단원의 학습 활동 안내하기 -학습 주제에 따른 학습 활동을 자세히 안내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차시</th> <th>학습 활동</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td> </tr> <tr> <td>2</td> <td>악기 및 장단 익히기</td> </tr> <tr> <td>3~4</td> <td>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td> </tr> <tr> <td>5</td> <td>배역 정하기</td> </tr> <tr> <td>6~7</td> <td>미술작업</td> </tr> <tr> <td>8~10</td> <td><전상놀이> 실연</td> </tr> </tbody> </table>	차시	학습 활동	1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2	악기 및 장단 익히기	3~4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5	배역 정하기	6~7	미술작업	8~10	<전상놀이> 실연	5' 7'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되, 전상놀이 시연 동영상이 없는 경우, 다른 굿 놀이를 하는 영상이나 전상놀이 민속극 공연 자료 등을 이용 한다.
차시	학습 활동																	
1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2	악기 및 장단 익히기																	
3~4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5	배역 정하기																	
6~7	미술작업																	
8~10	<전상놀이> 실연																	

단원 도입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제시 ▶ 제주도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인 굿놀이에 대해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굿놀이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3'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안내 <p>[활동1] 제주도의 민속놀이(굿놀이) 알아보기</p> <p>[활동2]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p> <p>[활동3] 장면별 내용 파악하기</p>	3'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별 내용 파악하기 <p>-극본을 보면서 전상놀이의 각 장면별 내용을 파악한다.</p>	5'	※ <삼공본풀이>를 직접 들려줄 수도 있지만, 가쁜장아기 이야기를 동화로 엮어낸 책이나 공연물이 많이 있으므로 미리 책을 읽거나 공연비디오를 보고 줄거리 를 파악해 오도록 한다.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굿놀이 알아보기 <p>-우리 고장에 전해 오는 민속 놀이(굿놀이)에 대해 알아본다.</p> <p>-학습 주제인 <전상놀이>에 관해 살펴본다.</p>	5'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p>-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듣는다.</p> <p>【장면1】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p>	10'	

			* 극본
단원 도입		<p>【장면2】 부자가 되어 가문장아기를 추방하다</p> <p>【장면3】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p> <p>【장면4】 가문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p> <p>【장면5】 거지 잔치를 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예고 -악기 및 장단 익히기 	
차시예고		2'	※ 과제로 제주 무악기를 조사해 온다.

나. 2/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굿놀이에 쓰이는 제주 무악기를 육지의 악기와 비교하며 사진이나 실물을 통해 악기의 모양, 주법, 쓰임새, 편성 등을 소개하고 직접 연주해 보게 한다. 또한 제주 무속음악의 감상을 통해 장단의 유형을 알아보고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 장단의 기본박을 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혹, 무악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실제 전상놀이의 실연에서는 학교에 있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물악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표 5>

전상놀이 2/10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음악	차시	2 / 10	시간	4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악기를 살펴보고 육지의 악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제주 무속음악의 장단의 유형을 알고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 장단의 기본박을 칠 수 있다. 				
학습 자료	연물치기 영상, 무악기, 무속음악, 장단보, 악기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미적 감지	홍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물치기 영상 감상 -어떤 악기들이 나오는지 이야기 한다. -특이한 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한다. 	5'	*연물치기 영상 ※연물치는 영상이나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 한다.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제시 ▶ 제주 무악기를 살펴보고 육지의 악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제주 무속음악의 장단의 유형을 알고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 장단의 기본박을 칠 수 있다. 	2'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제주 무악기 알아보기 [활동2] 장단 익히기 	2'	

미적 감지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악기 알아보기 - 실물 무악기나 사진 자료를 보며 제주 굿에 사용되는 무악기의 종류를 알아본다. - 악기의 모양, 주법, 쓰임새, 편성을 알아본다. 	15'	* 무악기 혹은 사진 자료 ※ 무악기를 실 물로 구할 수 있다면 직접 실 물을 보여주고 만져보며 연주해 볼 수 있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 익히기 - 제주 무속음악을 들어보고 연주되는 장단을 알아본다. -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의 반주 장단을 들어본다. - 구음으로 불러보고 무릎장단이나 손뼉치기로 해 본다. - 장단별 구음을 부르며 악기로 쳐 본다. - 악기의 연주 자세와 연주 방법을 알고, 악기별 팀을 구성하거나 모둠별로 장단을 쳐 본다. 		* 무속음악 음반 자료, 장단보 * 악기
가치화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예고 -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1'	* 실제 악기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 ※ 악기가 부족하면 모둠별로 골고루 나누어 돌아가며 연습하게 한다.

다. 3~4/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를 듣고 노랫말을 함께 읊

미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음악극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를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이 직접 노랫말을 만들어 흥미를 유발하고,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불러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느낌을 신체동작으로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표 6> 전상놀이 3~4/10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음악	차시	3~4 / 10	시간	8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국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를 듣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이야기를 토대로 노랫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바꿔 부를 수 있다. ▶ 노랫말의 내용에 어울리게 동작과 춤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음반자료, 악보, 악기, 국본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미적 감지	흥미유발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공본풀이> 음반자료 감상 -감상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특이한 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를 듣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5' 3'	*<삼공본풀이> 음반자료 ※ < 삼 공 본 풀 이> 음반자료 를 통해 학습동 기를 유발한다.

음악 미적 행위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이야기를 토대로 노랫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바꿔 부를 수 있다. ▶ 노랫말의 내용에 어울리게 동작과 춤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노랫말 탐색하기 [활동2] 노래 부르기 [활동3] 노래와 어울리는 춤 만들기
가치화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별로 삽입된 노래를 듣고 노랫말 탐색하기 -장면별 노래를 감상한다. -노랫말을 함께 음미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한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자료, 악보 * 악기 ※ 노랫말을 동작이나 춤으로 표현할 때 최대한 창의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게 하며, 노랫말을 바꿀 때에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만드는 기회도 부여하여 극의 장면에 어울리는 소재로 표현해 낼 수 있게 한다.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익히기 -교사가 장단을 치며 선창하면, 학생들은 한 소절씩 따라 부른다. -노래의 장면과 분위기를 생각하며 감정을 넣어 불러 본다.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 본다. 	30'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와 어울리는 동작이나 춤 만들기 -느낌을 신체로 표현하며 부른다. 	25'	

		-내용과 장면,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만든다. ▪ 차시 예고 -배역 정하기	1'	*극본 ※미리 극본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오게 한다.
--	--	---	----	---

라. 5/10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등장인물의 탐색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소질 등을 토대로 음악극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을 정하도록 한다.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 노래, 장면별 역할 등을 파악하여 배역의 성격과 대사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만들어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표 7> 전상놀이 5/10차시 교수 · 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국어	차시	5 / 10	시간	4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음악극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을 정해 대사를 낭독할 수 있다. ▶ 배역의 성격, 상황,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극본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미적 김지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상놀이> 등장인물 탐색 -극본상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5'	*극본 ※등장인물 탐색을 통해 <삼공본풀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 제시 ▶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음악극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을 정해 대사를 낭독할 수 있다. ▶ 배역의 성격, 상황,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2'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활동2] 배역 정하기 [활동3] 배역의 성격, 상황, 음향과 어울리는 몸짓 만들기 	1'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8'	※배역 결정시,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관심과 소질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역 정하기 -학생들의 의견과 소질 등을 토대로 배역을 정한다. 	10'	

가치화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역의 성격, 상황, 음향과 어울리는 몸짓 만들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대본을 보며 파악한다.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 노래, 장면별 역할 등을 파악하고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구상한다.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신체표현과 대사가 함께 어우러지게 극본대로 연습을 한다. 	12'	<p>※ 신체표현을 어색해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깨춤을 추거나 춤을 추듯이 걸음을 걸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극본</p> <p>※장면에 필요 한 소 phẩm이나 의상이 무엇인지 구상해서 준비물을 가져오게 한다.</p>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예고 -미술작업 	2'	

마. 6~7/10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민속극 <전상놀이>의 시청을 통해 무대 배경이나 의상, 소품 등을 찾아보고,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만들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며,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나 방법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단, 소품은 무대 및 공연에 알맞은 규모이어야 하므로, 음악극에 필요한 소품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보관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표 8>

전상놀이 6~7/10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미술	차시	6~7 / 10	시간	8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글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다. ▶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 배경과, 소품, 의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 				
학습 자료	민속극 전상놀이 동영상, 글본, 배경, 의상, 소품 제작 준비물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미적 감지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극 <전상놀이> 동영상 감상 - 민속극 <전상놀이>를 보며 무대 배경이나 의상, 소품 등을 찾아본다. 	7'	* 민속극 전상놀이 동영상 ※ 민속극 전상놀이 동영상을 보면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유의 한다.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제시 ▶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다. ▶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 배경과, 소품, 의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 	2'	
	학습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장면별로 어떤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활동2] 소품과 의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야기하기 	3'	

창의적 표현		[활동3] 배경, 소품, 의상 만들기	12' 13' 4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본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나 방법은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만들게 한다. *배경, 의상, 소품 제작 준비물 ※의상이나 소품 등의 준비물을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한다.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에 필요한 배경 구상하기 - 전상놀이에 필요한 배경을 구상해서 만들 것을 명확히 한다.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에 필요한 소품과 의상 구상하기 - 준비해온 소품이나 도구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 놀이에 사용한다. - 의상은 특별히 준비하거나 만들지 말고 갖고 있는 옷들을 활용하고 색깔 등을 통일하여 극에 어울리게 입도록 한다.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놀이>에 필요한 배경, 의상, 소품 만들기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예고 - <전상놀이> 실연 		

바. 8~10/10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 지도 중점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를 실연하고, 감상 및 평

가하는 차시로, 실연 단계는 배우, 악사, 관객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해 나가는 것임을 인지시켜 춤과 추임새를 하며 흥겨운 활동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표 9> 전상놀이 8~10/10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제재	전상놀이	적용 대상	3~6학년	장소	교실
주요 교과	음악	차시	8~10 / 10	시간	120분
단원 주제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국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국이 함께하는 전상놀이를 발표할 수 있다. ▶ 적극적인 태도로 전상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상놀이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배경, 소품, 의상, 악기, 캠코더, 평가지 등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창의적 표현	실연준비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한 배경을 설치한다. -의상과 소품을 갖추고 대기한다. ▪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국이 함께하는 전상놀이를 발표할 수 있다. ▶ 적극적인 태도로 전상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상놀이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20' 2'	* 배경, 소품, 의상, 악기

창의적 표현	학습활동 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전상놀이> 발표 하기 [활동2] 감상하고 평가하기	3'	* 캠코더 ※ 대부분의 학 생들이 놀이에 참가하므로, 놀 이 장면을 캠코 더로 촬영하여 실연 후에 자기 평가 및 상호평 가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 <전상놀이> 실연하기 【장면 1 :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 【장면 2 : 부자가 되어 가믄장 아기를 추방하다】 【장면 3 : 삼녀를 쫓은 뒤 장님 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장면 4 : 가믄장아기 마통이 집에 가서 작은 마통이와 결혼하고 부 자가 되다】 【장면 5 : 거지잔치를 하여 부 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다】		50'
		▪ 평가하기 - 실연 후 소감을 이야기한다. - 감상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촬영 동영상을 보며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한다.		30'
가치화	활동1	▪ 정리하기 - 배경, 소품, 의상, 악기 및 무대 정리하기	15'	* 평가지
		▪ 정리하기 - 배경, 소품, 의상, 악기 및 무대 정리하기		
	정리하기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제주의 굿놀이인 전상놀이의 여러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 분석하여 간략화하고 정형화하여 음악극 형태의 가·무·악·극을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상놀이를 가무악과 극이 통합된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악기 및 장단 익히기,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배역 정하기, 미술 작업, 실연의 6단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음악인 주요교과와 국어, 사회, 미술 등의 관련교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였다.

그 과정으로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들려주기 단계에서는 제주도의 굿놀이인 전상놀이라는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전상놀이의 굿본인 삼공본풀이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 굿놀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발견하게 하며, 삼공본풀이의 장면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악기 및 장단 익히기 단계는 굿놀이에 쓰이는 제주 무악기를 소개하고, 제주 무속음악의 장단을 익히게 하는 과정이다. 특히 육지의 악기와 비교되는 제주 무악기의 모양, 악기의 주법, 쓰임새, 악기의 편성 등을 사진과 실물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게 하고, 무악기를 사용한 제주 무속음악을 직접 들려주어 장단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본박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는 실제 굿놀이인 전상놀이에서 부르는 삼공본풀이의 노래를 듣고 그 특징을 살펴보며, 음악극 전상놀이에 삽입된 노래를 익히는 단계이다. 노래를 들을 때에는 노랫말 탐색을 통해 각 장면별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제 파악이 되면 그 장면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노랫말을 만들어 바꿔 부를 수 있도록 하며, 노래를 부를 때에는 노랫말의 내용에 어울리는 동작과 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악기로 장단을 연주할 수도 있으

며, 메기고 받는 부분으로 나눠서 부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배역 정하기 단계는 전상놀이에 필요한 배역을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다. 배역을 정하기에 앞서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소질을 고려하여 배역을 정하며, 배역이 정해지면 그 배역의 성격, 상황,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작업은 전상놀이에 필요한 무대 배경과 소품, 의상 등을 만드는 과정으로, 역시 장면별로 어떠한 무대 장치와 배경이 필요한지, 소품과 의상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야기 한 후 만들기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전상놀이를 직접 실연하고 감상 및 평가하는 단계로, 배우, 악사, 관객 모두가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극이 함께하는 흥겨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6단계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거지 부부가 결혼하여 세 딸을 낳다, 부자가 되어 가쁜장아기를 추방하다, 삼녀를 쫓은 뒤 장님이 되고 다시 거지가 되다, 가쁜장아기 마퉁이 집에 가서 작은 마퉁이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다, 거지잔치를 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딸과 상봉하여 눈을 뜨다의 다섯 개 마당을 중심으로 한 전상놀이의 극본을 구성하였고, 총 10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교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첫째, 학생들이 제주의 굿놀이를 직접 활동을 통해 실연하는 것은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스스로 향유하고 체득하는 기회가 되어 다양한 문화생활의 가치를 발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 무속음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제주 무속음악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음악극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은 음악의 영역을 종체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적인 신장은 물론 그 활동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하고 연기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간의 협동성 및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함에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굿놀이 가운데 전상놀이만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연구하여 다소 보편적인 자료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제주 의 굿놀이는 그 종류가 많고 내용도 다양하므로 학교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굿놀이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꽤 넓게 이루어짐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방법으로 음악극을 적용했지만, 활동 영역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각 영역별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동만, 『다큐제주』, 제주:각, 2008.
- 김선풍 외,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서울:집문당, 1996
- 김혜정, 『초등 국악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민속원, 2008.
- 노재명 외, 『제주도의 무속음악』,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_____, 『제주 민속극 : 종이탈굿놀이본, 심방굿놀이본』, 제주:각, 2003.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서울:민속원, 2007.
- 심상교, 『한국전통연희론』, 서울:집문당, 2008.
-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서울:대광문화사, 2000.
- 안경수, 『제주도 민요곡집』, 서울:국악춘추사, 2005.
- 윤명원 외, 『한국음악론』, 서울:음악세계, 2003.
- 이강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임동권 외, 『민속놀이론』, 서울:민속원, 1997.
- 장주근, 『한국민속학개설』, 서울:학연사, 1986.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道誌』第6卷 문화 · 예술, 제주:제주도, 2006.
- _____, 『濟州道誌』第7卷 문화유산, 제주:제주도,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권, 제주:제주특별자치도, 2008.
- _____, 『제주문화예술 60년사』 3권, 제주:제주특별자치도, 2008.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제주도교육청, 1996.
- 조영배,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 진성기, 『남국의 민속놀이』, 서울:홍인문화사, 1975.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서울:민속원, 1991.
-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민족문화사, 1991.
- 현용준, 『靈』, 제주:각, 2004.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제주:각, 2008.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집문당, 1986.
- 玄容駿, 「濟州道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21호, 제주:제주도, 1965.

2. 논문집

- 강영아, 「제주 무악(巫樂)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천지왕, 땡감, 영감본풀 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07.
-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김미영,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용왕맞이에 한하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巫歌研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박희순,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 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장영신, 「안산 둔배미 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09.

3. 참고음반

- 국립국악원, KBS, 『한국의 굿 NO.4-제주 칠머리당굿』 CD, 서울:국악춘추사, 서울음반, 2000.

※ 국 문 초 록

제주 굿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 전상놀이를 중심으로 -

지 소 영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지도교수 조 영 배)

문화재는 인류가 공존하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인 자산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이자 예술양식이며, 인류의 역사이자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따라서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요 책임이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취지하에 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의 굿놀이가 제주도의 자연공간을 이해하고 제주 사람들이 생산하고 향유하며 전승하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그 전통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주의 많은 굿놀이 중에서 전상놀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 굿놀이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민속놀이의 개념을 알아보고 제주의 민속놀이를 분류해 보면, 제주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주 놀이 중에서 전상놀이를 중심으로 그 유래를 알아보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상놀이의 구성 및 연희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전상놀이를 가무악과 극이 통합된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 전상놀이의 유래 및 줄거리 듣기, 악기 및 장단 익히기, 장면별 삽입 노래 익히기, 배역 정하기, 미술작업, 전상놀이 실연의 6단계 교육과정을 토대로, 극본을 구성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제주 놀이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제주 무속음악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음악적 신장 및 그 활동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하고 연기함으로써 협동성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섬 문화와 전통을 이어 왔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묻혀 지금까지 제주의 전통문화는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다.

본 연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돋우고 직접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a Teaching-learning Method of Jeju Gutnori - Focused on Jeonsangnori -

Ji, So-young

Major for Korean Music of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 Young-bae)

Cultural assets are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worth preserving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They make up natural environments and could be called modes of art, the history of mankind and human life itself in essence. The right understanding and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are mandatory, and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uts stress on local culture learning, as they say the most local things are the most international th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eonsangnori, one of a variety of Gutnori of Jeju Island, which seemed to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at region and diverse local lifestyles, tradition and culture created and enjoyed by the local residents.

The following efforts were made to develop a teaching-learning method for Gutnori in that area.

First, the concept of folk play was discussed, and the folk play of that region was classified to find out the types of the local folk play.

Second, the origin of Jeonsangnori, one of the local Gutnori, was discussed, and the composition and process of it were checked to develop a teaching-learning method.

Third, a sixth-stage curriculum was laid out to teach that play by incorporating singing, dancing, instrumental music and drama: listening to the origin and story of the play, acquiring duration and how to play the instruments, acquiring inserted songs, role assigning, making art materials and performing. After a script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curriculum, lesson plans were mapped out.

The teaching-learning method prepar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effective at teaching students to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heritage of Jeju Island and its value, to gain new experiences about local shamanistic music and to improve their musicality. They will be able to be more cooperative and community-minded in the course of sharing their opinions, practicing and acting together when they learn about the play.

On Jeju Island, unique culture and tradition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land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wing to the geographic conditions, but the local cultural heritage hasn't yet been played up properly, being overshadowed by the beautiful scenery. Recently, Chilmeoridang Youngdeunggut of the region was selected as the intangible global cultural assets by the UNESCO, and the value of the local culture is widely recognized in the world.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an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have interest in local cultural heritage, experience it in person and understand the precious value of it.